



제2039호
2013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4. 7.

가톨릭마산

관련 기사

성삼일 전례 ○ 3면



하느님의 자비 주일'
유래와
파우스티나 성녀 ○ 4면



교구 통계 ○ 5면

가톨릭 칼럼 ● 7면

배가지 ● 8~9면

함께하는 이웃 ● 10면



시온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해발 765m의 시온산은 그리스도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들에게 모두 거룩한 산이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행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하였으며, 성모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약 시대에는 이 산이 성벽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성벽 바깥에 있다.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지를 감싸고 있는 성

벽의 8개 문 중 남서쪽에 있는 '시온문'을 지나 올라가면 시온산이 있다. 이곳에 '최후의 만찬 기념 경당'과 '성모 영면 성당'이 있으며, 시온산 남동쪽 언덕에는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이 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 사도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시온산에 위치한 '최후의 만찬 기념 경당'이다. 기념 경당 1층에 토마스 사도 기념 경당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



부활의 노래

강영구 루치오 신부(교구 총대리)

봄이다. 부활의 노랫소리가 들리는가?
 벚꽃들의 함성은 화사하고 황홀하다.
 개나리의 노랫소리는 샛노랗다.
 참꽃과 진달래는 연분홍 노래를 부른다.
 부활의 노랫소리는 아름답고 향기롭다.
 봄이라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서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 같은 동토凍土를 박차고 밖으로 나오는 생명 있는 것들만 노래할 수 있다.
 나목裸木으로 죽음 같은 겨울을 이겨낸 것들만 부활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
 혹독한 추위와 애는 듯 매서운 찬바람과 얼음 같은 겨울을 이겨낸 사람은 꽃들이 부르는 부활의 노래를 보고 들을 수 있다.
 부활은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의 현실이다.
 부활은 교리敎理가 아니다.
 부활은 함성이고 노래며 환희이다.
 예수님은 부활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님은 사랑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을 올랐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을 살았을 뿐이다.
 차고 어두운 돌무덤이 예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미움과 증오가 사랑과 용서를 덮어 누를 수 없다.
 겨울 동토凍土가 아무리 차갑게 얼어붙어도 새싹의 움 틈을 막을 수 없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돌무덤 또한 예수님을 감금할 수 없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다.
 함성처럼 피어나는 벚꽃이 부활의 증거이고,
 샛노랗게 피는 개나리가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신다.



우리의 삶

송미경 루치아(남해본당)

우리의 삶은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순의 삶의 연속이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십자가 그 너머에
 소중하게 포장된
 부활이란 영광의 선물

인생의 사순이 끝날 때
 부활로 완성되는 우리의 삶이길
 소망해본다.





주교님께서 병자 성유, 예비신자 성유를 축복하시고
축성 성유를 축성하시고 있다.



주교님께서 신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입을 맞추고 있다.

성유 축성 미사

교구장 주교님께서서는 교구 사제단과 함께 3월 28일(목) 오전 11시 주교좌 양덕동성당에서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하셨다. 교구장 주교님께서서는 강론에서 “사제의 든든한 버팀목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제의 신원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제는 세상보다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제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셨다. 또한, 주교님께서서는 사제 서품 25주년을 맞이하는 김상진 레미지오 신부(월남동본당), 이학울 사바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장민현 테오도로 신부(명서동본당), 진선진 마태오 신부(해성교 교장)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셨다. 이날 교구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교회 봉사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제직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는 서품 당시의 서약을 갱신하였다.

주님 만찬 미사

교구장 주교님께서서는 3월 28일(목) 주님 만찬 미사를 장애인복지시설인 의령 '사랑의 집'에서 봉헌하셨다. 이날 미사에는 사랑의 집 가족들과 신반공소 신자들이 참석하였다. 교구장 주교님께서서는 강론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강론 후 주교님께서서는 참석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셨다.

주님 수난 예식



주교님과 교구청 사제, 수도자, 직원들은 3월 29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3시 교구청 지하성당에서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하였다.

부활 성야 미사



대산성당은 3월 30일(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를 봉헌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였다.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주교님께서서는 3월 31일 주교좌 양덕동성당에서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미사 후 주교님과 전 신자들은 음식을 먹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다.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본당 대표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약혼자 주말 참가자들이 이정근 신부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반석재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지원사업

2013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지원사업’이 3월 30일(토) 교구청 4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설명회에는 선정된 7개 본당(가좌동, 거창, 덕산동, 망경동, 봉곡동, 신안동, 중동)의 7개 팀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지원사업의 취지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봉사활동 시간 인증시스템과 사업지원금의 회계처리 등의 교육을 받았다. 반석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고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환경을 정화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일학교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제2차 약혼자 주말 재모임

제2차 약혼자 주말 재모임이 3월 30일(토) 교구청에서 있었다. 이정근 요한 신부(가정사목국장)와 함께 6쌍이 이번 모임에 참석하여 약혼자 주말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나눔을 하였다. 참석자 중에는 “서로 신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재정을 함께 공유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전과 달리 다툼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빨리 풀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부부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제3차 약혼자 주말은 8월 16~18일 개최할 예정이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유래와 파우스티나 성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4월 30일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널리 알려진 마리아 파우스티나 성녀(1905~1938년)를 시성하면서 하느님 자비를 특별히 기릴 것을 당부하셨다. 이

에 교황청 정신성사청은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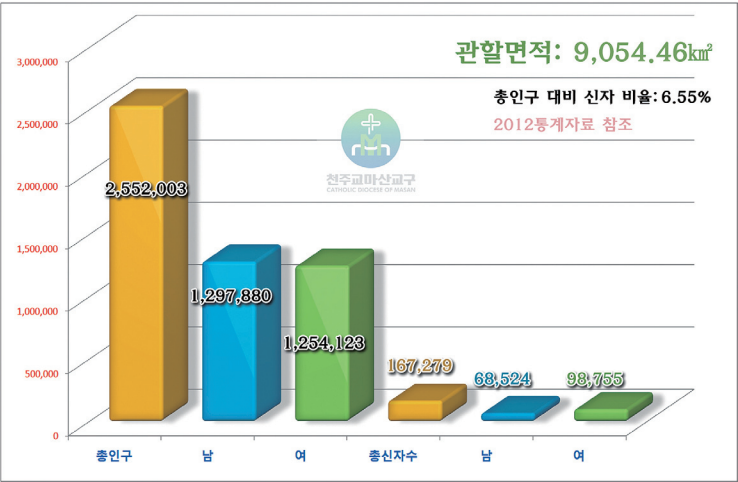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성녀는 하느님 자비의 증거자였다. 20살,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하여 주방일, 정원사, 문지기 등 소임을 맡아 수도생활을 하다가 폐결핵 등 여러 병고가 겹쳐 33살에 하느님 곁으로 떠났다. 파우

스티나 성녀는 외적으로는 평범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 속에 살았다.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했는데, 이는 성녀의 영성생활에 토대가 되었다.

성녀는 1934년 고해 사제의 뜻에 따라 영적 체험을 통해 받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은 예수님께서 1931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 당신 모습을 그려 전하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으며,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다. 또한, 심장에서는 두 줄기 빛이 발하고 있는데 하얀빛은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붉은빛은 영혼의 생명인 피를 상징한다.

2012년 교구 교세 통계



‘2012년 교구 교세 통계’(2012년 12월 31일 현재)가 3월 20일 자로 발표되어(교구공문, 사무 2013-60 참조) 교구 내 본당으로 발송되었다. 본당 및 공소 수는 **본당 72곳, 공소 53곳으로 전년도(2011년)와 동일하다**. 신자 증감에서 세례(3,004명)와 전입(4,458명)으로 8천 366명이 증가하였으며, 사망(779명)과 전출(4,511명) 등으로 6천 772명이 감소하여 전체 증감 수에 있어서 **1천 5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구 소속 신부는 156명에서 157명으로 1명이 증가하여 교구 내 133명(본당 사목 90명, 특수 사목 29명, 원로 사목 14명), 타 교구 7명(군종교구 4명, 신학교 3명), 재외국 11명(현지사목 1명, 교포사목 8명, 유학 2명), 기타 6명(안식년 3명, 휴양 3명)으로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교구 통계는 ‘한국천주교회 통계’에 반영되며,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조만간 전국의 천주교회 교세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자 증감 내역

증 가 수			감 소 수		
세 려	계	3,004	사 망		779
	유 아	709			
	어 른	2,122	사망추정		168
	대세자	173			
전 입	계	4,458	전 출	계	4,511
	교구 내	2,758		교구 내	2,647
	타 교구	1,700		타 교구	1,864
교적 재작성		500	교 적 정 리		86
기 타		404	기 타		1,228
총 계		8,366	총 계		6,772
증 감 수 : 증 가 1,594 명					

신자 ·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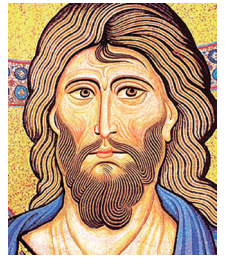
교 구 신 자			연 도	교 구 인 구			교구인구대비 신자율(%)
총 수	실증가	증가율(%)		총 수	실증가	증가율(%)	
159,287	1,948	1.24%	2008	2,414,094	-32,289	-1.32%	6.60%
161,449	2,162	1.36%	2009	2,445,314	31,220	1.29%	6.60%
163,645	2,196	2.74%	2010	2,511,571	66,257	4.04%	6.52%
165,685	4,236	4.02%	2011	2,530,892	85,578	4.84%	6.55%
167,279	1,594	2.22%	2012	2,552,003	21,111	0.83%	6.55%

비수계 신자 현황

연도	마 산 교 구				
	비수계신자(냉담자)			수계신자	총 계
	거주미상	주소확인	계		
2008	37,608	37,877	75,485	83,802	159,287
	23.61%	23.78%	47.39%	52.61%	
2009	31,573	36,588	68,161	93,288	161,449
	19.56%	22.66%	42.22%	57.78%	
2010	34,705	33,389	68,094	95,551	163,645
	21.21%	20.40%	41.61%	58.39%	
2011	34,142	36,876	71,018	94,667	165,685
	20.61%	22.26%	42.86%	57.14%	
2012	35,627	35,627	71,018	94,667	167,279
	21.30%	21.30%	42.86%	57.14%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⑩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며 주십시오.
(루카 17,5)



흔히 수도자에 대해서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헌장’은 이러한 가르침과는 달리 제6장에서 수도자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헌장’ 제6장 43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자의 신분은 교회의 신적이며 교계적인 구조를 헤아려 볼 때, 성직자와 평신도 신분의 중간이 아니라, 그 양편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각자 자기 방식대로 교회의 구원사명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자는 교회의 교계 구조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자는 서원을 통하여 또는, 그 고유한 특성에서 서원과 비슷한 형태의 거룩한 결연을 통하여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의 의무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적 권고를 통해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고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새롭고 특수한 자격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복음적 권고는 주님의 말씀과 모범에 토대를 둔 것이며, 또 사도들과 교부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학자들과 목자들이 권장하는 것으로 교회가 주님께 받아 주님의 은총으로 언제나 보존해 오고 있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복음적 권고는 그것을 지키는 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교회와 그 신비에 특별한 모양으로 결합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각자의 개인적 성소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복음적 권고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자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사랑의 열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누구나 각기 하느님께 불린 그 성소 안에 항구히 머무르며 더욱더 정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며 기원이 되시는 한 분이시며 나누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도자가 소속되어 있는 수도단체와 교회의 교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 교계의 임무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며 가장 기름진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완덕을 각별히 복돋아 주는 복음적 권고의 실천을 교회법으로 지혜롭게 지도하는 것은 교계의 소임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충실히 따르는 교계는 훌륭한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각 수도회의 규칙을 제시하고, 더 보완된 규칙을 유권적으로 승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자 곳곳에 세워진 수도단체들이 설립자들의 정신에 따라 자라나고 꽃피우도록 자신의 권위로 감독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하느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서원자들의 서원을 받아들입니다. 공적기도로 하느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도움과 은총을 얻어 주고, 그들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빌어 주며, 그들의 봉헌을 성찬례의 희생제사와 결합시켜 줍니다.

교회는 특별히 수도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산에서 관상하시고, 군중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들고 상처 입은 이들을 고쳐 주시고, 죄인들을 건실한 사람으로 회개시키시며,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며, 당신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수도자의 삶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보화를 모든 신자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수호를 위한 노력 (1)

지금, 한국에서는 남과 북의 전쟁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전쟁연습은 그 도가 지나치고,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참된 평화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침략전쟁과 테러리즘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며, 증오와 죽음의 씨를 뿌리는, 인명을 무시하는 행위이기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침략전쟁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방어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65항). 또한, 테러리즘에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97항 참조).

침략전쟁에 대한 정당방위의 요구는 국가들 안에 군대의 존재를 정당화합니

다. 그러나 군사행위는 평화를 위한 것 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군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도덕적으로 국제법과 이법의 보편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범죄를 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에 불복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목현장, 79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2,313항 참조). 군 복무가 의무인 국가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의 거부**는 정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사목현장, 79항). 어떤 상황에서도 무고한 생명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민간인들은 전쟁의 영향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자기들이 살던 곳을 잃어버린 난민들은 특별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제 공동체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거나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집단들을 위하여 개입할 도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

입은 그 목적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그 조치들이 민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목적은 협상과 대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인 제재는 지극히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합법적·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문 ‘로세르바포레 로마노’ 참조).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전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평화를 위한, 평화를 향한 원칙들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가톨릭 칼럼 | 성염 前 주 교황청 한국대사 • 문정공소

교황은 ‘다리 놓는 사람’



프란 치스코 새 교황님이 주 교황청 외교관들과 가진 첫 만남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다. “교황pontifex”이라는 말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가 만민 사이에 대화의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타인과 타 국민을 경쟁하는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열씨안을 형제간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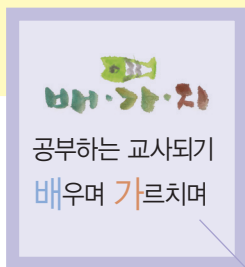
필자가 현지에서 근무하던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교황청 국무원장(총리)에게 기자들이 몰려 왔다. “북한이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자행하였는데 바티칸은 북한 제재에 어떻게 동참할 것입니까?” 그 질문에 관한 추기경의 답변, “이런 사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평화로이 분쟁을 풀어갈까를 논의하는 곳이지 바티칸은 제재를 논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무렵 바티칸에 일본대사가 새로 부임하였다. 일본은 그 때 대북식량원조를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제일 강경한 입장

을 취하면서 쌀 한 톨 안 보내는 나라다. 교황은 그때 그 대사를 통해서 일본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북한에 있는 백성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추구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이 시민들에게 참으로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3년 한반도를 처음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김포공항에 내려 맨 처음 한 일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에 입을 맞추며 “순교자의 피로 거룩해진 땅”이라고 하던 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어느 국가 원수도 우리 땅에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다시 열을 올리고 북한에 선제공격 하자는 호전주의자들이 설치는 요즈음,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를 받는 신앙인들이 바티칸을 바라보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와 화해의 다리를 놓는 평화의 사도가 되고 싶어지는 까닭은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는” 저주받은 땅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이달의 주제

HD교실 사례로 본 감정코칭의 효과

감정코칭의 역사

감정코칭은 60년대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하임 기너트의 교육철학으로 제시되었고, 9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로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최성애 박사님과 조벽 교수님 부부가 교육학, 인간발달학, 뇌과학 등 학문적 바탕을 구축하여 한국을 비롯해 중미, 남미, 중국, 동남아에 소개하면서 효력을 입증한 방법입니다.

감정코칭은 50여 년간 과학적 실험과 임상 실험을 거쳐 검증되고,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인성회복과 인간관계회복 방법입니다.

HD교실 감정코칭을 배우기 전

HD(happy, dream)교실은 감정코칭을 실제 학교에 적용해 보기 위해 2009년 한 학기 동안 만들어진 반이었습니다. 이 교실의 아이들은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소리 지르고 욕하거나 선생님을 불신하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교실은 무질서하고 교실 바닥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코칭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나자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이 바뀌었습니다.

HD교실 감정코칭을 배운 후

태도가 달라지고 의욕이 생긴다.

조금씩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 교사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또래 관계가 좋아진다.

서로 욕하고 다투거나 왕따를 시키던 아이들이 학기 말이 되자 매우 친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받아주고 존중하게 되면서 배려하는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실은 편안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태도가 달라지고 의욕이 생기며 또래 관계가 좋아지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된다.

감정코칭을 하자 5초, 10초, 1분, 5분... 이렇게 나중에는 한 시간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HD교실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짜증 난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좌절감과 짜증을 느끼고 쉽게 포기했습니다. 감정코칭을 통해 지적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

HD교실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들과의 시선을 회피하려 합니다. 얼굴을 마주 보려 하지 않으면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코칭을 하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얼굴을 잠깐이라도 쳐다보게 하자 학생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면서 서서히 교사를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사의 눈을 보며 학생들은 교사들도 자신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

자신의 감정을 알면 행동을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거칠거나 무례한 행동은 대개 감정을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나타나고, 감정을 알아주기만 해도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코칭을 한 후에는 "수업이 지루해요,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하면서 자신의 기분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적응력이 우수해진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모니터하게 해서

‘신용통장’에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점수가 충분히 쌓이면 여행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신뢰가 쌓이고 자부심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주위에 계획되지 않은 변화에 대해 짜증 내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질병에 덜 걸린다

감정코칭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덜 받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특히 감염성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갈등이나 이혼에 대한 회복능력이 향상된다.

부모의 이혼 및 갈등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대한 치유 효과가 있다고 연구로 검증된 것은 현재 감정코칭이 유일합니다.

출처 『청소년 감정코칭』 최성애·조벽 지음

퀴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요즈음, 부활시기에 떠나는 소풍을 흔히 ‘○○○소풍’이라고 합니다. ○○○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엠비씨 ② 엠마오 ③ 갈릴리
- ④ 예리고 ⑤ 베짜타

▶ 휴대폰 문자에 **본당, 소속(초·중등교사), 이름, 세례명**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 전화번호 : 010-7730-8186

▶ **당첨자** : 김미자 아네스(남지선교본당, 중등부)



★ 마침기도

선생님 중 한 분이 오늘 공부한 주제에 맞게 자유기도를 합니다.

소식보감

| 또래사도 월 모임 |

일 시: 4월 7일(주일) 10:00~16:00

장 소: 성산종합사회복지관

| 신임교리교사 연수 2과정 |

일 시: 4월 13일(토)~14일(주일) 1박 2일

장 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전체문의 : 청소년국 055)249-7051~4

교사보감

알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확실히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냅시다!

주님을 믿고 열렬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 사랑을 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활 축하합니다.

청소년국 이용미 마리안나 수녀



아들과 손자, 농아인 딸까지 짙어진 강구임 벨다 할머니

가음동본당 대문 앞에 있는 세방전지 아파트는 재개발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빈집이 많다. 여기에 거주하는 강구임 벨다(86세) 할머니는 4년 전 아들이 세방전지를 퇴직해서 집을 비워야 하지만 다른 곳에 전세를 얻을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눌러살고 있다고 한다. 연로한 분이 살고 계시니 어찌지 못해 참아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걱정은 태산이지만 다른 방도가 없기에 무턱대고 하루하루 살 뿐이다.

가음동본당 이해경 클라라 자매와 함께 찾은 강구임 할머니의 집은 말이 아파트이지 제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남루하기 짝이 없다. 10평짜리에 방은 두 개이지만, 방 하나가 손바닥만 해서 두 사람이 눕기에도 빠듯하게 보인다. 여기서 아들(56세)과 중학생 손자, 그리고 말 못하는 딸(61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창 자라는 손자의 교육이 걱정

충청도 조치원이 고향인 강구임 할머니는 아들을 따라 창원에 일자리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와 정착한 것이 30년 전의 일이다. 늦게 혼인한 아들은 마흔 살에 귀한 손자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머느리가 노름에 빠져,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달아나버리는 황망한 일이 벌어졌다. 세 살밖에 안 된 손자가 그때부터 할머니와 병어리 고모 손에 크게 되었다. 그런 침울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손자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긴 하지만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라고 할머니는 말한다. 늘,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생활이었으니 손자의 교육에 투자할 경제적 여유도 없거니와 뒷바라지해줄 사람도 마땅찮으니 손자를 나무랄 수도 없다. 올해 중학생이 되고 나니 더욱 걱정이 앞선다는 할머니의 얼굴이 잔뜩 어두워진다.

아들은 일용으로 일하고 있으나,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서너 시간 일하고 일찌감치 귀가하니 이 또한 걱정이다. 평생 테리고 사는 말 못하는 딸이 그나마 밥을 끓여주어서 끼니는 챙길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언제 길바닥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강구임 할머니는 외로운 타향에서 살아가는 만만찮은 삶을 위로받으려고 이웃에 있는 성당을 스스로 찾았다고 한다. 머느리가 떠나고 황폐하게 살아가는 아들이나 말 못하는 딸과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받아주는 자매들이 있어 위안으로 삼았다. 그래서 새벽 미사도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 자주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코앞에 있는 성당이라도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집을 찾아주는 클라라 자매가 고맙기 그지없단다. 몇 마디 말이라도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얻기 때문이다. 클라라 자매와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는 할머니의 마음이 읽혀 안쓰럽다.

약을 달고 산다는 할머니는 살 만큼 살았지만, 가족들이 참 걱정이란다. 언제 길바닥에 나앉을지 모르는 처지인데, 올해 중학생이 된 손자의 교육과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들과 홀로 자기 옆에서만 살아온 말 못하는 딸까지! 할머니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3일 자 가톨릭마산(제 2034호) '함께하는 이웃'에 소개된 김춘자님께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 분

강은옥, 김윤선, 김시옥, 김진, 박선영, 박소영, 박용호, 박유성, 신우연, 윤은선, 이명돌, 이미리, 이옥자, 조영배, 정옥선, 정연만, 정창화, 최애란, 최정야, 추현숙, 최윤생, 익명

모금액

총 1,555,080원 전액을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이재영 바실리오 신부님을 통해 김춘자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문의 : 교구 미디어국 055)249-7072~5

계좌 : 외환은행 630-008366-251 예금주 재)마산교구 천주교회

※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선물

김말순 베아타 수필가

베란다 한구석에서 노란 꽃이 피었다. 그것도 꽃대가 두 개나, 봉오리를 맺힌 지 근 두 달이나 지나서 만개하였다. 지난겨울같이 매서운 한파가 있었을까. 그 추위를 견디고 나온 새순이며 꽃들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이 꽃은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 난은 재작년에 친구에게 놀러 가서 받았다. 친구네 베란다에 있는 화분 구경을 하다가 이 난을 처음 보았는데, 이 난을 받을 때는 그리 달가운 마음이 아니었다. 퍼렇게 멀대같은 것이 꽃이나 필까 싶었고, 뒤에 받은 자줏빛 국화의 매력적인 색상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내심 내키지 않았지만, 난이 심어져 있는 화분이 고급스럽게 보여 함께 가져왔다.

난분을 베란다 통풍기 옆 구석에다 놓았다. 가장자리는 좀 께찮은 조경수로 놓고 그 앞에는 계절 따라 피는 작은 화분들이 있어서 난분을 놓을 곳은 거기 밖에 자리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베란다 나무나 꽃을 관리하면서 그 난에 대해선 살뜰히 돌보지 않았다. 지난겨울은 하도 추워서 잎이 여린 작은 나무들은 얼까 봐 거실에 모두 들여놨는데, 난분은 그 자리에 두고 그저 가끔 물이나 줄 뿐이었다. 거실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 화분까지 들일 자리가 없었다. 아니,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화분을 들여놓기 싫었던 말이 더 맞을 것이다. 통풍기 옆은 여름엔 에어컨에서 열기가 나오고, 별은 오후에 해 넘어갈 때 잠깐 비친다. 겨울에 창틀 틈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견뎌 마침내 꽃대를 두 개씩이나 올리고, 봉오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난에서 화사하게 꽃이 핀 것이다. 그 꽃이 어찌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보고 있으면 흐뭇하다. 집에 있을 땐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간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저 난의 모습이 아닐까.

저 난은 주인의 사랑과 관심은커녕 다른 꽃에 비해 천덕꾸러기로 홀대를 받으면서도 제 할 일을 다 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이다. 강추위에, 뜨거움에, 별도 잘 받지 못했지만 어느 꽃보다 더 봉오리를 많이 달고 화려하게 피워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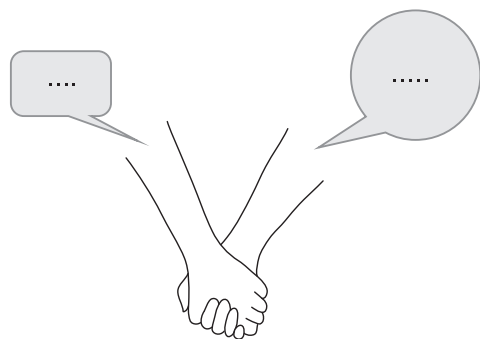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어렵고 힘든 과정은 생략하고 풍성하고 화려한 결과만을 원한다.

나도 저 난을 닮고 싶다. 시련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담히 제 몫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싶다. 또, 저 꽃처럼 결실을 맺고 싶다.



빈자리
자기사랑 테라피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주위에 알리세요.
그 감정들은 정말 중요해요.



천사의 집 세탁기 후원 요청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천사의 집에서 일반세탁기가 필요합니다.

내 용 : 일반세탁기 13kg이상(60명이 사용하므로 큰 용량이면 좋습니다.)

문 의 : 천사의 집 055)672-6608

창원지구 성령새신봉사회 일일 피정

일 시 : 4. 15.(월) 13:00~17:30

장 소 : 반송성당

강 사 : 박효철 신부(예네덕토, 전국 성령새신 봉사회 지도신부)

주 제 : 구원의 기쁜소식

문 의 : 창원지구 성령새신봉사회 055)262-0985, 011-554-3138

순교자 도보 순례길 체험

일 시 : 4. 20.(토) 10:00~15:00

장 소 :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 지세포본당 예구공소

대 상 : 본당 사목 회장단, 교구 평협 회장단

내 용 : 말씀의 전례, 순례길 탐방, 운봉문 성지 조성지 방문

준비물 : 등산복, 운동화

참가비 : 1인 1만 원

문 의 : 고현본당 055)636-1004

본당 사목 방문

일 자 : 4월 10일(수)

본 당 : 남해, 하동

일 자 : 4월 12일(금)

본 당 : 가음동, 진례

재무 평의회

일 시 : 4월 9일(화) 10:00

장 소 : 교구청

견진 성사

일 자 : 4월 14일(주일)

성 당 : 금산성당

교 구

● **성직자 묘역 성묘**

일 자 : 4. 8.(월)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 **청년 성교육 1주차**

일 시 : 4. 10.(수) 19: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소공동체장 연수(마산지구)**

일 시 : 4. 11.(목) 13:00~16:00

장 소 : 양덕동본당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가톨릭문인회 성지순례**

일 시 : 4. 13.(토) 10:00

장 소 : 정찬문 순교자 묘지

문 의 : 문인회장 010-6766-5202

● **신입 예비신학생 부모 연수**

일 시 : 4. 14.(주일) 14: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청년 로고스 루카 통독 피정**

일 시 : 4. 27.(토) 14:00~28.(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

참가비 : 1인 4만 원

신 청 : 4. 19.(금)까지(선착순 30명 마감)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기관·단체

● **경남생태귀농학교 15기 강좌 안내**

일 정 : 4. 6.(토)~6.1(토) 매주 토 15강좌

장 소 : 창원시성산종합사회복지관

모 집 : 50~80명

수강료 : 한 사람 20만 원, 부부 35만 원

(현장체험비 포함), 농협 301-8795-

0745-51 사)경남귀농학교

접 수 : 입학원서 팩스 055)264-8352

메일 yyw8800@naver.com

문 의 : 경남생태귀농학교 사무국

070-8795-0745, 010-3067-8800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 미사**

일 시 : 4. 7.(주일) 15:00

장 소 : 남성동성당

문 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일 시 : 4. 9.(화) 19:30

장 소 : 사과공동성당

문 의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천차만차

대동자동차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1

055)253-1700

011-865-1137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 밝은세상의 시작은 안경이야기에서...

안 경 이 야 기 마산 합성점

하드 RGP 콘텍트, 누진 다초점 전문점
마산합포구 합성1동 85-8번지
마산 시외버스 맞은편

이기웅 로마노, 이태란 요안나
055)295-0888



중풍, 치매,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세양요양병원

이사장 : 박외숙 에스텔, 복지사 : 박경주 마르가리타

011-845-5634, 010-7255-9440

병원 : 055)224-6300

마산 오동동 12-3(서광프리메리 상가)

- 사랑으로 모십니다. -



삼우네트워크(주)

정보통신

CCTV 설치, 방송음향 장비 교체, 카폰

본당 방송장비 교체

010-9014-3456

정형식 바오로

마산한의원

불임증, 뇌경색(중풍)

부정맥(불규칙한 심장 박동, 가슴통증)

야뇨증, 코피 나는 분, 입 돌아간 분

원장 광용호 라우렌시오

055)246-3169(마산중부경찰서 맞은편)

부림자동차학원

편하고 여유로운 자체 시험

통근버스 운행, 주말반 운영

055)271-7900

(마산 면허시험장 옆)

김용한 요한



**종합피아노
삼익·영창 중고**

대표 장동식 아우구스티노

박미자 아네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1

올림픽 호텔 1층 118호

055)263-5823, 010-5001-6251

- 조율사산업기사 1급
- 조율 수리반반
- 각종악기

●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4월 '생명·평화 미사'

일 시 : 4. 11.(목) 19:30
장 소 : 교구청 내 지하성당
문 의 :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249-7168

● 교구 4월 다락방 기도회

일 시 : 4. 22.(월) 12:30
장 소 : 사파공동성당
문 의 : 조영희 신부 011-499-0842
회장 010-9778-4330

● 경상남도 미혼모지원센터 양육미혼부·모

멘토링 멘토·멘티모집
일 정 : 4월~12월
장 소 : 멘티의 집, 경남미혼모지원센터 등
대 상 : 멘토(10여 명) - 미혼부·모에 대한 애정이 있고, 코칭 의지가 있는 누구나(사회복지, 상담, 보육 경력자 환영), 서류,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멘토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
멘티(10여 명) - 도내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모, 멘토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
내 용 : 멘토와 멘티(미혼부·모) 1:1 결연과 정기적인 만남, 미혼부·모의 삶의 전반에 관한 멘토링(상담, 양육지도, 학습지도, 나들이, 병원동행 등의 활동)
지 원 : 소정의 활동비 지급, 자원봉사

시간 인정

신 청 : 4. 15.(월)까지 홈페이지(www.knmom.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gnmom79@hanmail.net) 또는 팩스로 접수
문 의 : 박순영 055)243-0233
팩스 055)243-1785

기 타

● 삼성산성지 2박 3일 '사랑' 대피절

일 시 : 4. 12.(금) 18:00~14.(주일) 15:00
장 소 : 삼성산성지 강 사 : 정중규 신부 외
출 발 : 한일예식장 앞 10:00
문 의 : 010-7375-4600, 02)874-6346

● 꽃동네 젊음이 성령축제

젊음이 철야기도회 13주년을 맞아 말씀과 치유의 영적인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일 시 : 5. 4.(토) 09:00~17:00
장 소 :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특별초청강사 : Madam MariaKutty(인도 크리스틴 공동체 창설자, 청소년 피정 전문가, 말씀 및 치유봉사자)
치유미사 : 오웅진 신부
대 상 : 부모님과 함께 모든 가족을 초대합니다.(도시락 지참)
문 의 : 010-5490-5345

● 제주 자연 피정

일 정 : 5. 19.~22./ 6. 10.~13./ 6. 18.~21./ 7. 21.~24./ 7. 27.~30./ 8. 1.~4.
장 소 : 제주 성이시돌 목장 내
문 의 : 성이시돌 02)773-1455

● 제14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 봉사&어학 연수

기 간 : 1차 6. 23. 출발(8주, 12주)
2차 8. 25. 출발(8주, 12주)
기 타 : 캐나다, 호주 연계연 수 가능
문 의 : 대구 청소년수련원 053)593-1273
※ 제21회 청소년 필리핀 영어 연수(4주) 모집



비잔틴 이콘 전시회
일 시 : 4. 10.(수)까지 10:00~18:00
장 소 : 월영본당 1층 대교리실
이콘제작 : 최창희(베로니카)
서 각 : 이정근 신부(요한, 찬조출품)
문 의 : 016-9899-4412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레	문 의
교 구	4. 8.(월) 19:00	월남동성당	구마 은사	이훈희(바오로, 삼성산 회장)	-	010-5247-9900
창원지구	4. 10.(수) 19:30	명서동성당	은혜의 밤	-	장민현 신부(테오도로)	011-554-3138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예수회	4. 13.(토) 16:00	한국 예수회 관구 본부	010-8589-9880	vocsj@hanmail.net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사도회	4. 14.(주일) 14:00	서울 종로구 구기동 하비에르사도회	010-2360-5649	mmyongsook@gmail.com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4. 14.(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19-1690	-

거제 대명리조트 오픈 기념 특별분양 특별혜택 : 객실요금 30~50% 할인 2년간 아쿠아월드 무료(2년간) 부대시설 20~40% 할인 골프, 스키, 아쿠아, 요트, 콘도를 회원권 하나로! 상담 051)605-3863 김삼태 베드로	쥬니어 음악 학원 피아노·바이올린 초·중·고등부 / 일반부 /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벨빌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영어전문(English Buddy) 금성출판사 푸르넷 지도교사 및 관리교사 모집 초등·중등 영어전문, 재택근무(가맹비 없음) 학생 회원상담도 가능 010-5434-2517, 055)601-2517 원장/지도교사 이계석 레지나	대한보청기 귀로도 마음으로도 잘 들리게 되시기를... 창원 055)222-3050 마산 055)242-9992
● 노인 요양 병 동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 정신과 병 동 (알코올 및 정신 질환) 마산 예경 병원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055)249-5500, 011-592-8329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초음파 백내장 수술 전문 진주 박안과 의원 진주시 대안동 7-10 (영남빌딩 4층, 엘리베이터 운행) 중앙시장 입구. 국민은행 옆. 한빛은행 앞 055)746-0175(제일치료) 원장 박창열 제노비오	수맥홀(돌)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문 의 ☎ 1588-5335	초혼 · 재혼 · 만혼 성가정 결혼 051)907-9525 김실비아 010-5514-3294 부산 서면역 12번 출구

만나

만나는 흰색의 작은 씨앗처럼 생겼으며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은 뒤 빵이나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꿀 섞은 과자 맛과 비슷하다.



만나를 거둠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티며 먹었던 음식재료다. 흰색의 작은 씨앗처럼 생겼으며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은 뒤 빵이나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꿀 섞은 과자 맛과 비슷하다고 했다(탈출 16,31).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날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 강 하류에 신도시를 세우고 있었다.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벽돌 만드는 기술자였기에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려 할 때 파라오는 끝까지 반대했다. 제일 큰 이유가 노동력의 상실이었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신도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현실의 고통은 자기들과 무관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세를 통해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설사 재앙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즉각 없애준다는 철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위험한 발상이었다. 주님

께서는 생각을 바로잡으시려 시련을 내리신다. 배고픔의 고통이었다.

견디다 못한 군중은 모세를 향해 불평을 토로한다. ‘당신은 우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왔소?’(탈출 16,3)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다 위험했다. 더구나 이민족의 공격을 받으면 굶주림에 지친 그들은 노예로 잡혀갈 처지였다. 죽음의 공포가 덮어오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주님께서서는 기적의 양식을 내려 주신다. 고통에서 해방된 것이 아님을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음식이 만나였다. “이슬이 걷힌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나 하고 서로 물었다(탈출 16,14-15).”

만나의 어원은 ‘이게 뭐냐?’라는 히브리말 만후(manhu)에서 왔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40년간 만나를 먹게 된다. 이집트를 떠나면 곧바로 약속의 땅에 갈 줄 알았는데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광야에서 보낸 사십 년은 민족 정신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였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막에서의 생존은 얼마만큼 그분께 충실 하나에 달려 있었다. 불충으로 어느 날 만나가 끊어지면 곧바로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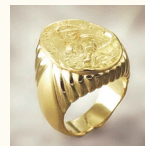
신은근 바오로 신부(미국 덴버 한인성당 주임)

제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교구 가톨릭문인협회에서는 교구 내 신자를 대상으로 제7회 가톨릭문학 신인상을 공모합니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등단하지 않은 마산교구 천주교 신자
- 응모분야 : ■ 시(5편이상) ■ 수필(200자원고지 15매 내외 2편)
 - 소설(200자원고지 70매 내외 1편) 또는 동화(30매 내외 1편)
- 접수처 : (631-860)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 심사 및 발표 : 예심과 본심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당선자는 개별 통지함
- 당선자 :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가톨릭문인협회 회원 자격이 주어짐
- 응모마감 : 9월 30일(월) 당일도착에 한함
- 기타 : ①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
 - ② 작품 끝에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본당을 명기할 것
 - ③ 당선작을 내지 않을 수도 있음
 - ④ 워드로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 ⑤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고 결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
 -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회장 민창홍(요한) 010-6766-5202

어부의 반지



교황을 상징하는 반지 도장으로 어부의 모습을 한 사도 베드로가 새겨져 있고, 그 둘레에 당대의 교황 이름이 새겨져 있다. ‘어부의 반지’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0)라고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 반지는 새로 선출된 교황에게 주어지며, 그 교황이 선종한 뒤 공개적으로 폐기된다.

기도 드리는 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면, 그의 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으로 완성되는 자기 포기를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관행에 따르면 죽은 이의 펼쳐진 빈손을 다시 기도드리는 형태로 가지런히 모아 놓습니다. 흔히 이 손을 묵주로 감싸기도 합니다.

가지런히 모으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죽은 이의 손을 바라보며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지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손이 간직하고 있었던 상징적 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손은 무엇에 필요합니까? 몸의 이 부분은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표정과 마찬가지로 손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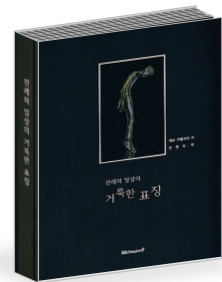
손은 하느님을 지향하고,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

어원학적으로 손Hand이라는 단어는 고트족 언어의 ‘히르판’hirpan이라는 단어와 연관됩니다. 이 단어는 ‘잡다’, ‘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잡거나 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섬세한 신체의 일부인 손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잡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필요한 물건을 받고, 쥐고, 변형하기 위하여 손으로 잡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연장해주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도구들도 손으로 잡습니다.

아울러 사람은 자기의 손을 이웃을 향해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주기 위한 의도에서, 아니면 적대적인 의도에서 다양하게 손을 펼쳐 보입니다. 이처럼 도움을 주고, 치유하고, 선물을 주는 어머니 또는, 의사의 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거절하고, 때려 부수는 폭력의 도구로 드러나는 손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카인의 손을 연상시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에서 손은 하느님을 지향하고,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내하는 사람인 욥에게 그의 친구가 “자, 불러 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이 누가 있는지?”(욥 5,1)라고 말합니다. 조각가 에른스트 발라크Ernst Barlach는 손으로 꽃바퀴를 감싸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데 몰두하는 욥의 모습을 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신의 시대

정진국 바오로 신부
성지여고 교목

한 마을에 의심이 많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려고 도끼를 찾으려 보이지를 앓았습니다. 마루 밑을 샅샅이 훑고, 광을 뒤지고, 집 뒤편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노인이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불현듯 며칠 전 자기 집 앞을 어슬렁거리던 옆집 젊은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젊은이 말고는 없어진 도끼를 훔쳐갈 사람이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불리 추궁하다가는 발뺌을 하거나 증거인 도끼를 깊숙한 곳에 숨길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옆집 젊은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젊은이가 걷는 모습이 분명 도끼를 훔쳐간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하릴없이 빈둥대다가 하품하는 모습 또한 영락없이 도끼를 훔쳐간 사람의 하품질이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만 잡으면 벼락같이 덮쳐서 도끼를 되찾고 젊은이를 혼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 나갔던 마누라가 돌아오는데 도끼를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혼자 겸연쩍어 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착한 젊은이를 혼자 생각으로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워 했습니다. 그래 다시 젊은이를 보니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결백해 보였습니다. 하릴없이 빈둥댄다고 여겼었는데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여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품을 한번 해도 아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저런 옆집 젊은이를 의심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사건이나 사람도 바라보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물컵에 물이 반 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물

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복음 말씀에 토마스 사도가 등장합니다. 토마스 사도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하고 말하며 격하게 거부합니다. 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토마스에게 이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의심입니다. 들리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필터,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의 필터, 진실을 진실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필터, 믿음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의 필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너무 각박한 시대 상황이 사람을 의심 가득한 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있는 자, 배운 자, 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와 로마의 식민지배는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불신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일자리에서 쫓겨난 이들의 이어지는 자살, 취업난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젊은이들.... 그러나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본 현금 10억 이상을 가졌다는 0.3% 부자들은 아직도 자신은 돈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시대만큼이나 의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토마스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불신을 지우고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전례 |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 제1독서 | 사도 5,12-16

| 화답송 | 시편 118(117),2-4,22-24,25-27ㄱㄴ(◎ 1)



주님은 좋은 신분, 찬송 하 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 하 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여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 제2독서 | 묵시 1,9-11ㄴ,12-13,17-19

| 부속가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19-31

| 영성체송 |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